

연중 제20주일

기도서 416면(다해)

제1독서: 예 레 38, 4-6. 8-10

제2독서: 히 브 12, 1-4

복 음: 루 가 12, 49-53

숲 정 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 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루가 12, 49).

강론

소리

그리스도의 불을 놓자

우리는 피해자다

유 종환 신부/효자동 천주교회

은 세상 곳곳에 잡초와 쓰레기 더미가 무성하다. 또 강이 죽어가고 공기가 오염으로 가득차 간다. 습도 제대로 못쉬고 물도 마음 놓고 못마시는 세상이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다고 한다. 옛날에 비해 너무나 안락하고 자유스러운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좋아진 세상인가? 아기자기한 세상인가? 이렇게 안주해도 좋은 세상인가? 라고 반문치 않을 수 없다.

빈부차이가 뚜렷한 세상, 폭력과 저항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는 세상,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 서민들, 철거민들, 노점상들이 우리도 한번 인간 대접을 받아보자고 소리치고, 또 전교조 가입교사들이 참 교육을 부르짖다가 해직되고, 정의구현사제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감옥으로 가고 있다.

민주화의 불길은 작게 보이나 오래전부터 치솟고 있다. 이 불이 온 세상에 활활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보안법 같은 악법은 불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고, 거짓을 토해내는 악한 무리들이 불로 달구어져 회개하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심, 서두름, 지칠줄 모르는 활약,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시골에서 도시로, 오두막에서 궁전으로, 회당에서 성전으로 옮겨다니며 모든 이에게 도달하고자 하시는 소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는 삶으로 훨훨 타올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누가 우리들에게 민주화를 거저 주겠는가. 누가 우리들에게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거저 주겠는가. ‘골고타 위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어렵도 없다.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내뱉어서 되겠는가. ‘씩씩이니’, ‘뜨거운 맛을 보아야 하느니’ 등 독재자의 하수인들이 내뱉어온 망언에 가슴이 탄다.

해도 너무나 한다고 소리만 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불이 되어 훨훨 타올라야 한다. 탱크 앞에 목주알을 굴렸던 저 필립핀 국민들 처럼 폭력과 권모술수와 온갖 부정부패와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독재자들에게는 뜨거운 불맛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서로서로 아껴주고, 봉사해 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사랑의 불길이 치솟게 해야 한다.

“전북은 전원 야당을 뽑았으니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한다”는 민정당 김모의원(대구북구)의 망언은 전북은 물론 각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전북의 낙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을 요구한 만큼 배정케 해달라는 민정당 전북지역구위원장들의 간청에 대해 이같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민정당은 그에게 책임을 물어 국회에결위원장 내정을 취소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도민들의 뒤뜰린 감정은 쉬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평민당이 주최한 ‘망언규탄대회’에는 3만여 도민이 모여 분노의 뜻을 같이했다. 흔히 지역감정으로 표현되고 영호남간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다. 그간의 인사정책이나 개발투자에 있어 특히 전북을 푸대접해온 집권과 소위 TK핵심세력들의 전북에 대한 하대경향은 날로 심화되는 느낌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총선에서 여당후보는 하나도 뽑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한채 그 결과만을 놓고 “지역감정”을 나무라고 있다.

원인도 원인이라니와 이고장 주민들은 지역갈등의 희생자들이다. 그러기에 ‘지역감정’이 화제가 되면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상하고 만다. 누구나 지역갈등이 땅국의 풍조라고 한탄한다. 그러면서도 이 해묵은 갈등을 해소키 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결자해지(結自解之)-가해자측이 먼저 뉘우치고 피해자측에 사과하고 사과의 뜻을 실천에 옮기면 그만일 터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할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다.

이제 집권핵심층은 말로만 지역갈등의 피해를 떠들거나 이를 부추겨 득을 보려하지 말고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라. 그리고 행동으로 피해를 보상하라.

다시말하거나와 지역갈등에 관련한 우리에게는 하고싶은 말이 없다.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숲정이 산책



경애하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후속 조치가 없는 7·7선언으로 인한 남북교류문제 (2)반 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으로 인한 공안정국 (3)청산되지 않은 5공비리 등, 현재 우리 모두는 국가 안위에 대한 염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체에 교구 사제단은 전 교구민의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모임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이 주최하는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미사

- 일 시 : 1989. 8. 21(월) 오후 7시30분
- 장 소 : 천주교 전주교구 중앙성당
- 주 례 :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 철 신부
- 강 론 : 광주 가톨릭대학 교수 이 병 호 신부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사 제 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우리 전주 교구민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다. 지금부터 10여년전 그리고 제작년 6월 항쟁! -너 나 없이 모두가 일어 섰었다. 주교·신부·수녀·평신도 할것없이 모두 일어 섰었다. 노장과 소장이 어디 있었으며 보수와 혁신이 어디 따로 있었던가? 갖 서품된 부제로 부터 은퇴 하시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할아버지 신부님들까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기도회에 참석했다. 며칠씩 단식하여 뗏기 없이 수척해진 얼굴, 굵고 굵어 입술이 바짝 바짝 타는 목소리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들을 지켜보며 성당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기도 하였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어찌 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결과 이 땅은 서서히 민주화애로의 희망찬 길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이제 세상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영신사정에 좀더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를 높이며 조용히 침묵을 지켜 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새로운 제6공화국-5공을 청산하고 광주 사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므로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겠노라고 호언 장담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6공이 오공(五共) 청산은 커녕 오히려 한 술더떠 5공 보다도 더 야비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무수한 애국 민주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있으니 말이다. 걸핏하면 간첩, 용공분자 빨갱이로

몰아 부치고 언론과 최대한 협잡, 자신들의 이권 여하에 따라 작은 것을 크게 큰것은 작게 왜곡 조작하므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다시 뭉쳐야겠다. 이 정권으로 하여금 민주화애로의 제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죄한 사람들, 참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간첩, 용공분자,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가거나 죽어가지 않도록... 통일애로의 열망이 한낱 꿈이 되지 않도록..... 입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 해야겠다.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 되었던 옛날의 그 열기를 되찾아야 겠다. 우리 교회가 보수니 혁신이니 하는 이름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한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굳게 뭉쳐 있음을 만방에 알려야겠다. 우리에게 무슨 파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 모이자. 21일 오후7시30분 중앙 천주 교회로! 입 모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자.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감옥에 갇힌 문규현, 박병준 신부님과 2분 신부님을 위하여!

사 원 모 집

당사는 전자부품 생산업체로서 성실한 생산직 여 자사원을 모집합니다.

1. 자 격 : 학력제한 없음·만16세이상 34세 미만
2.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모집기간 : 8.21~8.3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바랍니다.

전주시 금암1동 1556-3 알·에피하이텍 ☎ 5-3697

훨씬앞고 가벼워진 초박형렌즈
140년 전통 서독칼라이즈
독 약 점
교우 특별우대
전주현대안경원
김 문곤 (요셉)
전주우체국 옆
☎ 83-6644, 84-3744

정통이태리풍 통기죽패션의 정장
아동화·캐주얼
일반화·약세사리
카이저전주특약점
전주우체국 현대안경원 옆
☎ 83-0598



성서와 함께

53. 구약의 형성(E) : 모세오경의 원전 사제계 원전(P)

P는 E와 함께 엘로힘이라는 칭호로 하느님을 부르면서도 후자와는 달리 좀 더 수사학적이고 복잡한 문체를 사용하여 제사와 사제에 관한 규정들을 소개한다. 이 원전의 고유한 목적은 사제 계급의 주요 관심사인 안식일, 음식, 할례, 제사, 사제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들의 기원을 밝히고 그 전통적인 가치들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네 원전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P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귀양에서 풀려난 이후인 에즈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것 같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사제 에즈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어떤 책을 들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P원전의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에즈라의 책이 P가 아니었겠는가 추측할 수 있다.

이 네 원전들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져 모세오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가장 단순하고 신빙성있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J와 E는 원래 완전히 독립된 원전이었는데, 기원전 721년 북부 왕국이 멸망한 직후 J를 선호하는 편집자에 의해서 합해졌다. 한편 기원 전 7세기 경 J와 E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D가 기록되고 바빌론 귀양 시절에 이 세 원전이 하나로 통합된다. P는 귀양이 풀리면서 즉시 기록되고, 이 네 원전이 한데 모아질 때 구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통합된 원전이 유대교의 근본을 이루는 문헌으로 고정 되기까지, 그 원전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법전들이 공동체의 경신례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읽혀지고 선포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신례에서 사용된 이 통합된 원전은 분명히 현재 우리가 대하는 오경과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오늘의 오경이 완성된 시기는 유대교가 완전히 고정되기 시작한 기원 전 40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요십이 (837) 김병오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 기정 (요祉)

효자성당 앞

☎ 82-6492

최수원피부관리

문 제 성 피 부 전문
유럽식체중관리

최 수원 (엘리사벳)

보건소 앞 덕수의원 옆

☎ 84-7880

미는 여인의 소망입니다

미스타미용실 여인의 도시

고 영길 (빈첸시오)

서 복례 (세시리아)

전주서 금암1동 526-21(한나학원 앞)

☎ 5-0535

교 구 소 식

1. 성소자 모임 : 일시-1989. 8. 20(일) 오후2:00 장소-가톨릭센터 3층 강당
2. 중·고 성가경연대회(예심) : 1989. 8. 27(일) 오후1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강당
3. 사제 어머니 모임 : 21일 오전10시 중앙성당에서 모입니다.
4. 8월중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 : 25일(금) 밤11시 장소-전동성당 초청강사-허순덕 (데레사)자매님

※축! 영명 : 성 베르나르도(20일) 소순형 신부님
성 비오(21일) 문선구 신부님
성 바르톨로메오(24일) 문정현 신부님 축하합니다.

※ 8월 마지막주 숲정이 분당소식은 21일 오전까지(12시) 도착토록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교구청 FAX 85-0119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 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 이 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사 원 모 집

당사에서는 코오롱 운동복 하청업체로서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재단기사 ○명 } 중식제공
봉봉기사 ○○명 }
오바기사 ○명 }

연락처 : 전북 원주삼례 88스포츠사 ☎ 9-2186

고 형 기 (도마) — 신자 대환영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 석
수녀원 82-9662

1. 축! 세례: 89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하드립니다.
2. 노송ME 가족단합대회: 27일 공식미사후 장소-동상면 수만리
3. 바라골리도 회원피점: 20일10시~21일6시 장소-한대골 공소 강당
4. 예비자 모집: 9월3일까지 L.M단원 일인일도에 전력을 다합시다.
5. 유아세례: 26일 2시30분 대부분이 전정하여 문서접수바람
6. 모임: 성가정회-27일8시 노영석씨때 성령기도회-24일8시 제대회-25일10시30분 빈첸시오-25일9시30분 ME백합모임-25일8시 이남호씨때
7. 매일 전례담당 차례표를 보시고 L.M단원들은 연쇄미사에 적극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608,500원 □ 교무금: 310,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요셉회: 오늘 저녁미사후
3. 유아세례: 26일 오후7:30
4. 삼회: 27일 오후2시
5. 회집단회: 27일 저녁미사후
6. 세계성체대회 참가자 접수: 27일까지 선착순 차비7,000원
7. 감사: 안나회-대형초대2개 300,000원 송마리아씨 .성합1개 150,000원

금주전례: 해설-윤귀자 독서①박상기 ②장영자
봉헌-박상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정동민 ②김하영
봉헌-정동민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497,920원 □ 교무금: 556,9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1. 성체조배: 시간 지켜 주세요.
2. 성가정회, 청년회: 공식미사후
3. 환자봉성체: 22일(화)
4. 제대회: 차주 공식미사후
5. 교리경시대회: 중·고등부-공식미사후 초등부-오후2시 학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6. 금주전례: 해설-이승복 봉헌-강순용 박봉동씨 부부
7.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봉헌-김한철 박봉영씨 부부
7. 목주기도봉헌: 1920년 누계41,835단
8. 감사: 제대꽃 봉헌-이모니카, 본당의 날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9. 성체대회 참가자 접수: 사무실 1인당 7,000원

□ 지난주봉헌금: 242,020원 □ 교무금: 60,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1. 회의: 성모회-오늘 공식미사후
2. 알림: ①다음주일 2차헌금 있음(수제민들기) ②사랑의 저금 풍-초·중·고학생들의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저금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및 중증공소 어린이 들기) ③초·중·고등부 교리경시대회-20일 ④성체대회 참가자는 속히 신청바람(참가비7,000원)

□ 지난주봉헌금: 454,210원 □ 교무금: 282,0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신축헌금 바랍니다.
2. 교무금 미납하신분 납부바랍니다.
3. 울드레아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
4. 베로니카회, 마달레나회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청소봉사: 21일~26일-주공3단지 동편
- 지난주봉헌금: 298,680원 □ 2차헌금: 225,000원
- 신축헌금: 14,775,000원(압금11,645,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 정의구현 사제단의 용기있는 행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 성전보수 헌금바랍니다.
※ "축" 꾸르실로 수료: 배전건(아오스명) 최기준(바오로)
1. 레지아: 오늘 오후2시
 2. 청년하게연수회: 19일-20일(변산 임해분교)
 3. 전국기도회: 21일(월) 중앙성당 저녁7시30분 미사
 4. 사오성서공부: 23일(수) 저녁미사후(사무실2층)
 5. 철야기도회: 25일(금) 저녁11시부터(성당)
 6. 보수비를 납부하신 분은 새로 발급된 영수증을 찾아가세요.(100주년 사무실로)
 7. 전신자 꽃동네 방문: 26일(토)
 8. 성마리아 꾸리아, 울드레아: 다음주
- 금주보수비헌금액: 2,250,000원 □ 현재도금총액: 53,886,80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420,000원 □ 현재신입총액: 181,457,15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 ※ 구속 사제단을 석방하라.
1. 세계성체대회 참가신청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참가비-1인7,000원
 2. 성모회·청년회: 오늘 공식미사후, 저녁미사후
 3. 꾸리아 윌레회: 다음주 오후3시
 4. 초등부 교리교사를 모집하오니,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5. 금주전례: 해설-함분권 복사-김화영 지동호
봉헌-박해근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중구 복사-문치구 이봉연
봉헌-송하중 부부
- 지난주봉헌금: 329,780원 □ 교무금: 170,500원
□ 자선헌금: 37,810원 □ 신축금신입총액: 149,359,836원
□ 울겐기금신입총액: 4,305,000원
- ※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하라.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중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지속적인 성체조배(365일) 9.8 성모 성탄부터 시작 스카폴라락의 의 9.3 미사중에 있습니다. 전신자 성체조배에 참석합니다.
 2. 축영세: 성모송찬반 새영세자들(44명) *수고해주시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권신부님 미사와 전례를 집전해 주실에 4. 오늘 특별강론: 사목회 5. 새 예비자교리 시간 안내: ①일-09:30 ②목-오후7:30(9월부터) ③금-오전10시미사후 *1신자 1예비자를 인도합니다.
 6. 8월16일-25일: 본당신부 마리아벨리 전국 연수회 *신자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7. 모임: 금주 토요일(26일) 오후3시-꼬미씨음
 8. 축/남성33차 꾸르실로 수료자: 성태준, 박희
- 교무금: 822,000원 □ 주일학교: 14,56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두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저녁미사후 2. 꾸리아 윌레회: 공식미사후
 3. 반기도회 준비모임: 25일(금) 어머니미사후
 4. 삼거리 공소미사: 25일(금) 오후8:30
 5. 유아세례: 26일(토) 오후2:00
 6. 차주모임: 반석회 요셉회 응답회 7. 차주: 2차헌금 있음
- 금주전례: 해설-김용부 독서①김영근 ②김현자
기도-권병채 이정희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부걸 ②송영이
기도-이중권 백숙명
- 지난주봉헌금: 426,120원 □ 교무금: 220,000원